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

The Effects of Child Inhibition, Day-care Experiences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 Social Withdrawal*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 전공

석사 최혜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 협동과정

교수 박성연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 : Hye Su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eong Yeon Park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inhibition, day-care experiences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social withdrawal in peer situations.

A total of 62 young children(34 boys; 28girls) enrolled in day-care center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on child inhibition and parenting were gathered via questionnaires whereas the quality of day-care and social withdrawal were observed in the day-care center. As results, the quality of day-care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were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withdrawal. Further, both day-care entry age and the quality of day-care were served as an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child inhibition and social withdrawal.

주제어(Key Words) : 행동억제(inhibition), 보육경험(day-care experience),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사회적 위축행동(social withdrawal).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72 Fax: +82-2-3277-2852 E-mail: psy@ewha.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I. 연구의 필요성

여러 아동들과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하거나 위축되며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다. 이러한 위축행동은 외현적 행동보다 눈에 덜 띄며, 비교적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일으키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 그러나 경쟁사회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에 이르러, 정서·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부모나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정상보다 낮은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이라고 하며,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은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수줍음(shyness)과 혼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기 다소 다른 의미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용어들이다(Rubin & Asendorpf, 1993). 즉, 사회적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회피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동억제의 구성요소와 유사하다(Rubin, Cheah, & Fox, 2001). 그러나 사회적 위축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모두가 포함된 낯선 상황에서 주로 어린 아이들이 나타내는 행동억제나,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어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줍음 행동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Asendorpf, 1991, 1993; 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이나 위축행동은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이나 아동의 동기성향(motivational tendency)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지만(Rubin, Burgess, & Coplan, 2002), 대체로 기질적 또는 생리적 특성을 그 원인으로 본다. 즉, 사회적, 비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아동의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행동특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며(Kagan, Reznick, & Snidman, 1987), 생리적 특성에서도 다르다(Fox, 1989). 이러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의 기원으로 생의 초기에 나타나는 기질적 특성이나 행동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안정적이어서,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Kochanska, 1991;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와 비사회적 행동억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억제와 사회적 위축은 각기 다른 개념 또는 다른 행동체계라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는 행동억제가 사회적 위축으로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강조되어, 부모는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과보호나 지나친 통제를 하는 부모는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아동들이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또래관계에서의 위축행동을 강화하게 된다(Rubin, Hymel, Mills, & Rose-Krasnor, 1991; Rubin, Stewart, & Chen, 1995). 그러나,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들일지라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사회적 위축이 덜 나타날 수 있다. Rubin, Burgess와 Hastings(2002)에 의하면, 어머니가 강압적인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와 4세 때의 망설임(social reticence)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어머니가 강압적이지 않으면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2세의 행동억제와 4세의 또래간 사회적 위축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나, 2세 때 어머니의 민주적인 행동은 4세 때 아동의 또래간 사회적 위축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행동억제와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또래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이른 시기에 보육경험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작 시기나 보육시간의 양은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보육의 효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영아기에 일찍 보육경험을 시작한 아이들이 늦게 보육을 시작한 아이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불순종적이라고 보고함으로써(박성연, 고은주, 2004; 하지영, 박성연, 2005; Belsky, 2001; Park & Honig, 1991), 보육시작 시기나 보육시간(양)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한 보육이나 장시간의 보육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는 한편(Howes, 1987), 보육시작 시기와 아동의 발달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주장(Scarr, 1998)도 있다. 이처럼 보육경험의 효과가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는 이유는 보육의 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육시간이나 시작시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비일관적인 것과는 달리, 보육의 질이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이다. 보육환경의 전반적인 질은 3~5세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의미있게 예언하며(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나 장시간의 보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은 보육의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박성연, 고은주, 2004; Belsky, 2001;

NICHD, 1999). 즉, 보육의 질은 어머니의 행동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아동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의 능력과도 관련된다. 질적으로 좋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은 유능한 교사에게 의해 사회화 경험이나 또래경험이 증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Belsky, 1997; Howes, 1987). 국내 연구들에서도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동발달이나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일치된 결론을 얻고 있다(박경자, 1992; 박성연, 고은주, 2003; 2004; 양연숙, 조복희, 2001a; 양연숙, 조복희, 2001b). 특히 보육의 질의 한 요소인 보육자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는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밝혀지고 있다(Schipper, Tavecchio, van Ijzendoorn, & Linting, 2003). 그러나 보육자와 위축된 아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축된 아동에게는 보육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발달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위축된 아동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 도피처로서 교사를 찾게 되고, 교사로부터 긍정적 관심이나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지각되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또래들의 지각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Birch & Ladd, 1998). 반면, 교사의 온정성이나 긍정적 관심은 수줍고 위축된 아이들이 또래에게 수용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아동이 소속된 반의 지지적인 분위기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Chang, 2003).

이렇듯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은 아동특성과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보육경험이나 양육행동)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hipper *et al.*(2003)는 기질이 보육의 영향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증대한다고 밝혔다. Volling과 Feagans(1995) 또한 14개월에서 40개월의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또래와 친근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아동의 기질과 보육의 질 간의 상호작용을 시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행동억제 성향을 지닌 아동이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이는데 있어서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경험이 이를 증대하기도 한다(Pfeifer, Goldsmith, Davidson, & Rickman, 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윤주화, 이종희, 1999)에서도 교사가 수줍은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위축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행동억제와 사회적 위축은 분명한 개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동억제 성향을 지닌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보육경험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걸음마기의 행동억제와 학령전기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를 증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특성이나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부모, 보육환경 등)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료해 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행동억제, 보육경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을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아동의 행동억제와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변인들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기 종단연구(박성연, 고은주, 2003)자료의 일부로 1차년도에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보육기관을 이용하였던 아동 182명중 2차년도에도 계속 같은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류가정 아동 62명(남아 34명; 여아 28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¹⁾. 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44개월이었으며(24 ~ 49개월),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세였고, 교육수준은 약 47%가 대학졸업이상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행동억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1차년도에 교사가, 보육시작시기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어머니가 응답해 주었으며, 보육기관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2차년도에 관찰자에 의해 평가되었다. 모든 자료의 수집은 학기가 시작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1)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성연과 고은주

1) 연구대상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기관의 수는 10개 기관이었으며, 한 아동을 2명 이상의 교사(주교사, 보조교사 등)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모두 117명의 교사가 평가자로 포함되었다.

(2003)의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척도 중 행동억제에 관한 6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며, 교사가 평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 아동을 돌보는 교사가 두명 이상인 경우는 모든 보육교사가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그 평균을 내었다. 행동억제는 낯선 사람, 장소, 사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을 말하며, 문항 예로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선뜻 놀기보다는 놀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를 들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동억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높은 수준이었다.

2) 보육경험

보육경험은 아동의 보육시작 시기와 보육의 질로 평가되었다. 보육시작 시기는 아동이 최초로 보육기관에 맡겨진 시기(개월)로 측정하였으며, 보육의 질은 보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NICHD(1996)에서 개발한 양육환경 관찰기록지(The Observational Recode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 ORCE)의 일부내용을 사용하였다. ORCE는 교사와 아동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행동의 빈도(행동척도)와 긍정적 행동에 대한 평정(질평정)을 통해 보육환경의 질을 측정하며 총 44분 동안 관찰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관찰과정은 10분 단위(30초 관찰, 30초 기록 반복)의 관찰주기를 3번 반복하여 34분 동안(각 10분 단위사이엔 간단한 내용기록 시간 4분이 포함됨) 아동 및 교사의 상호작용행동 빈도를 측정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그 반의 분위기와 교사 - 아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평정하게 된다. ORCE를 통한 관찰은 1주일 간격을 두고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훈련된 대학원생 6명이 관찰자로 투입되었다. 관찰자들은 연구대상 아동의 기관이 아닌 제 3의 기관에서 자유놀이 상황시 보육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자료로 1달간의 훈련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신뢰도는 $r = .8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ORCE의 빈도측정은 제외하고, 마지막 10분 동안의 질평정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반 분위기 평정은 관찰 대상 아동이 속해있는 반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한 평정으로 혼란스러움, 과잉통제,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 부정적인 정서 분위기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분위기 점수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부정적 반 분위기란 반 전체적으로 분노나 짜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많으며 아동간의 관계나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서도 언어적·신체적인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는 분위기이다. '전혀 그러한 특징이 없다' 부터 '매우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까지 4점 척

도를 이용하여 평정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아동이 소속된 반의 분위기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한편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보육교사와 대상 아동 간에 '별다른 애정적인 관계가 없음' 부터 '긍정적인 관계가 매우 많이 나타남' 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와 대상 아동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분위기와 긍정적 관계에 관한 전반적 질 평정시, 대상 아동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보육교사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을 평정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3)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성연과 고은주(2003)의 척도 중 사회적 위축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 통제적 양육행동 5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예로는 "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을 잘 지켜 보지 못하고 간섭을 하는 편이다" 등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측정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82$ 과 $.81$ 이었다.

4) 아동의 사회적 위축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은 관찰자가 ORCE를 통한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측정을 마치고 난 후,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질평정 과정에서 측정되었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행동을 회피하고 상호작용이 정상보다 낮은 정도를 의미하며, 또래관계에서 1점('위축이 전혀 없음')부터 4점('매우 위축된 행동이 나타남')까지로 평정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집단간 비교는 t-검증을 하였다. 이원변량분석 시 집단구분을 위해서는 모든 변인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또한 변인 투입 시 변인수를 줄이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적 양육행동($r = .41, p < .01$)은 합산하여 '통제적 양육행동' 변인으로 하는 한편, 부정적 반분위기는 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 관계 점수와 부적인 높은 상관을 나타내($r = .53, p < .01$) 역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보육의 질'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관찰내용이 많이 포함되며 연구대상 아동의 수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모든 유의도는 $p < .10$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들의 평균을 사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아동의 행동억제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보육경험 중 보육 시작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정적인 관계가($r = .27, p < .05$) 나타나 보육경험을 늦게 시작한 아동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기관의 부정적인 정서 분위기는 사회적 위축과 정적인 관계($r = .33, p < .01$)를 나타낸 반면,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부적 인 관계($r = -.53, p < .01$)를 나타내었다.

또한, 1차년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27, p < .05$)을 나타냈으나, 1차년도와 2차년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관관계가 높은 정적관계($r = .41, p < .01$)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2.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행동억제, 보육경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행동억제와 보육경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행동억제×보육경험(보육 시작시기 또는 보육의 질), 행동억제×통제적 양육행동, 보육경험×통제적 양육행동을 각각의 상호작용변인으로 투입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행동억제와 보육경험(보육 시작시기 및 보육의 질)의 상호작용

아동의 행동억제와 보육경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육 시작시기와 보육의 질 각각을 투입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억제와 보육 시작시기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동억제와 보육시작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 = 4.51, df = 1, 58, p < .05$)(<표 2 참조>).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행동억제와 보육시작시기 집단 간의 조합을 비교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행동억제가 낮은 경우에는 보육시작 시기에 따라 사회적 위축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 = .61, ns$), 행동억제가 높은 경우에는 보육 시작시기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39, p < .05$). 즉,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은 보육시작 시기가 늦으면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육 시작시기가 빠르면 사회적 위축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동억제와 보육의 질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보육의 질이 유의한 주 효과를 나타내어 ($F = 9.19, df = 1, 58, p < .01$), 보육의 질이 좋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은 낮았다. 한편, 행동억제는 보육의 질과 경계선 수준에

<표 1> 아동의 행동억제 및 보육경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위축간의 상관관계 (N = 62)

		1	2	3	4	5	6	7
아동변인	1. 행동억제	-						
	2. 보육 시작시기	.23 [†]	-					
보육변인	3. 부정적 정서 분위기	-.02	.24 [†]	-				
	4. 보육자와 긍정적 관계	-.14	-.22 [†]	-.53**	-			
어머니변인	5. 1차년도 통제적 양육행동	.20	.03	.07	.07	-		
	6. 2차년도 통제적 양육행동	.02	.25 [†]	.18-	.01	.41**	-	
아동행동	7. 사회적 위축	.19	.27*	.33**	-.53**	-.27*	-.16	-
M		3.01	14.52	1.42	2.92	2.84	2.80	1.82
SD		.62	.51	.51	.68	.58	.5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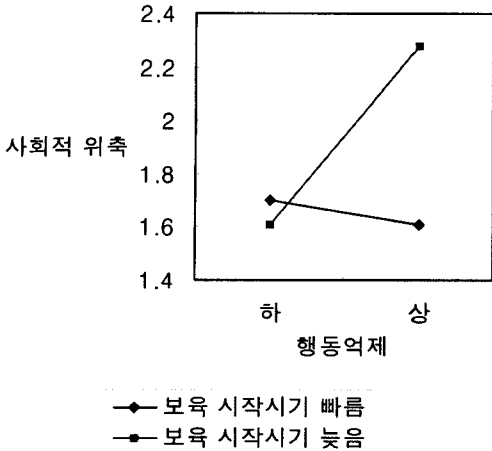
[†] $p < .10$. * $p < .05$. ** $p < .01$.

<표 2> 사회적 위축에 대한 행동억제와 보육 시작시기의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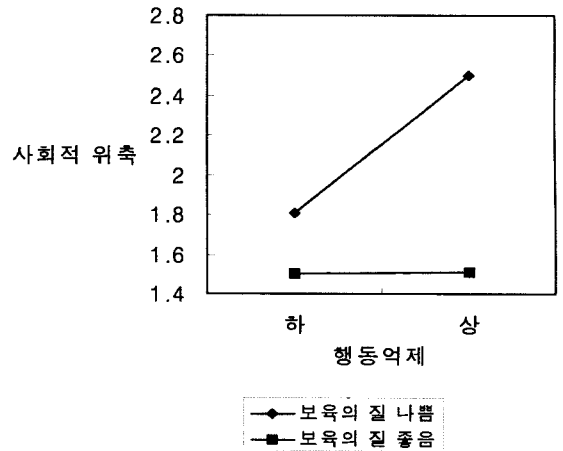
(N = 62)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회적 위축	행동억제(A)	.65	1	.65	1.12
	보육 시작시기(B)	.93	1	.93	1.60
	A * B	2.62	1	2.62	4.51*
	오차	33.74	58	.58	

* $p < .05$.



〈그림 1〉 사회적 위축에 대한 행동억제 및 보육시작 시기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사회적 위축에 대한 행동억제와 보육의 질의 상호작용효과

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F = 3.26, df = 1, 58, p < .10$)(표3 참조).

행동억제와 보육의 질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 조합을 비교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보육의 질이 좋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가 낮고 높음에 따라 사회적 위축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 = .36, ns$), 보육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적 위축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3, p < .05$). 즉, 보육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의 경우 특히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2) 행동억제와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사회적 위축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주효과만이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하여($F = 3.57, df = 1, 58, p < .10$),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위축행동은 낮게 나타났다(표 4 참조).

3) 보육경험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보육 시작시기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주효과만이 경계선 수준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F = 3.15, df = 1, 58, p < .10$),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3〉 사회적 위축에 대한 행동억제와 보육의 질의 이원변량분석

(N = 62)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회적 위축	행동억제(A)	.92	1	.92	1.75
	보육의 질(B)	4.85	1	4.85	9.19**
	A * B	1.72	1	1.72	3.26†
	오 차	30.62	58	.53	

† $p < .10$. ** $p < .01$.

〈표 4〉 사회적 위축에 대한 행동억제와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원변량분석

(N = 62)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회적 위축	행동억제(A)	1.17	1	1.17	1.93
	보육의 질(B)	2.16	1	2.16	3.57†
	A * B	.21	1	.21	.35
	오 차	35.07	58	.61	

† $p < .10$.

〈표 5〉 사회적 위축에 대한 보육시작시기와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원변량분석

(N = 62)

종속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회적 위축	행동억제(A)	1.31	1	1.31	2.18
	보육의 질(B)	1.89	1	1.89	3.15 [†]
	A * B	.27	1	.27	.45
	오차	34.86	58	.45	

[†]p < .10.

〈표 6〉 사회적 위축에 대한 보육의 질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원변량분석

(N = 62)

종속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회적 위축	행동억제(A)	5.74	1	5.74	10.87**
	보육의 질(B)	2.34	1	2.34	4.43*
	A * B	.12	1	.12	.23
	오차	30.62	58	.53	

*p < .05. **p < .01.

한편, 보육시작 시기대신 보육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는 보육의 질(F = 10.87, df = 1, 58, p < .01)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F = 4.43, df = 1, 58, p < .05)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어, 보육의 질이 좋을수록,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낮았다(표 6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 62명(평균 연령: 44개월)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보육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를 이용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아동의 행동억제를, 어머니로부터 보육 시작시기와 양육행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아동의 행동억제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관련변인 중 보육시작 시기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보육경험을 빨리 시작한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사이에서 사회적 위축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회적 위축과 부적인 관계를, 부정적인 반분위기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보육교사와 아동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수록, 반분위기

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위축은 낮았다. 그리고 1차년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보육관련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문제인 사회적 위축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행동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와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변인(즉, 보육시작시기 및 보육의 질 각각)을 투입한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나 보육시작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주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 각 변인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행동억제와 보육시작 시기, 또는 보육의 질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억제가 낮은 아동의 경우는 보육시작시기에 따라 사회적 위축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의 경우는 보육경험을 빨리 시작한 아동이 늦게 시작한 아동보다 사회적 위축행동이 낮았다. 또한 보육의 질이 좋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회적 위축이 낮았으나, 보육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상호작용결과는 아동의 행동억제가 위축행동으로 발달하는 것이 보육시작 시기나 보육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동억제 성향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아(Asendorpf & van Aken, 1994; Engfer, 1993), 행동억제와 또래관계에서 아동의 위축(Rubin, Stewart, & Coplan, 1995; Rubin et al., 1997)은 서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행동억제가 사회적 위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행동억제가 반드시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육행동 등 환경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정옥분 외, 2003; Kochanska, 1991;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를 뒷받침한다. 행동억제와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에 대한 이같은 비 일관적인 결과들은 환경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 외에도, 자료 수집방법이나 대상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와 위축간의 안정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구조화된 실험상황, 즉 낯선 상황과 낯선 또래들 사이에서의 아동의 위축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극단적으로 행동억제가 높았던 아동의 경우였다(Rubin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새로운 상황이 아닌,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행동이며, 더욱 구별되는 측면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온 또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축된 행동이라는 점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높은 행동억제를 보인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중앙치를 중심으로 상하집단을 나누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행동억제가 위축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행동억제는 환경적 변인에 의해 중재됨으로써 위축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행동억제와 보육경험의 상호작용효과는 출생초기에 보육경험을 한 아동이 공격성과 위축성이 높다거나(Belsky, 1988; Park & Honing, 1991), 학령전기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욱 사회적이라는(Howes, 1987) 등 보육경험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주 효과를 밝힌 연구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본 결과는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아동이라도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또래와 친근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보고(Volling & Feagans, 1995)를 뒷받침한다. 또한 행동억제와 사회적 위축행동간의 관계에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경험이 중재역할을 하며(Chang, 2003; Hughes, Cavell, & Willson, 2001; Pfeifer *et al.*, 2002), 교사가 수줍은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의 위축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다는(윤주화, 이종희, 1999)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특히 적응력이 다소 떨어지는 유아를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경험이 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한 행동억제와 통제적 양육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한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은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가 아동의 행동억제나 위축행동을 조장한다는 기존 연구들(Rubin *et al.*, 2002; Rubin *et al.*, 1995)과

는 그 방향에서 반대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과보호적, 또는 강압적 측면에서의 통제행동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주로 아동의 행동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수용적이기보다 간섭적일때 행동억제가 낮았다는 Arcus *et al.*(1992)이나 Park *et al.*(199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행동억제와 통제행동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들일지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민주적이고 덜 강압적이면 사회적 위축이 덜 나타날 수 있다(정옥분 외, 2003; Rubin *et al.*, 2002). 이러한 차이는 양육행동의 조작적 정의나 연구설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행동억제 및 사회적 위축행동과 관련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중재역할은 세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연구설계를 통해서 재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사회적 위축에 대한 보육경험(시작시기, 질 각각)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경우, 보육의 질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각각 독립적인 주 효과를 나타내 보육의 질이 좋을수록,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은 낮았다. 그러나 보육시기 및 보육의 질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육의 질은 물론,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행동억제는 주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보육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보육 시작시기, 보육교사와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 및 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동의 행동억제성향이 사회적 위축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경험이 점점 포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특성이 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경험의 중재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 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단기종단연구이고 보육교사와 아동, 또래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질적인 평정을 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연구대상 아동 수가 적어서,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문항이나 2회에 걸친 관찰자 평정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의 질이나 사회적 위축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평가자를 이용한

자료수집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 변인들(예; 성,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통제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8.

박성연, 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박성연, 고은주(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23-35.

윤주화, 이종희(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양연숙, 조복희(2001a).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의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양연숙, 조복희(2001b).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하지영, 박성연(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Paper presented in symposium o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Florida.

Asendorpf, J.(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6), 1460-1474.

Asendorpf, J.(1993). Abnormal shyness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7), 1069-1081.

Asendorpf, J., & van Aken, M. A. G.(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intelligent test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6), 1786-1798.

Belsky, J.(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1997년 한국아동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워크샵 자료집: 방과후 아동지도 전문가 워크샵, 1-5.

Belsky, J.(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3), 235-272.

Belsky, J.(2001). Developmental risks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7), 845-860.

Birch, S. H., & Ladd, G. W.(1998). Children's interpersonal behaviors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934-946.

Chang, L.(2003). Variable Effects of Children's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Prosocial Leadership as Function of Teacher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4(2), 535-548.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 year longitudinal study. In K. H. Rubin & J.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49-80). Hillsdale, NJ: Erlbaum.

Fox, N. A.(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64-372.

Howes, C.(1987). Social competency with peers: Contributions from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55-167.

Hughes, J. N., Cavell, T. A., & Willson, V.(2001). Further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the quality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4), 289-301.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6), 1459-1473.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6), 1580-1589.
- Kochanska, G.(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2) 250-263.
- NICHD Early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3), 269-306.
- NICHD Early Care Research Network.(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Park, K., & Honig, A. S.(1991). Infant care and later teacher rating of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8(1), 89-96.
- Park, S.Y., Belsky, J. Putnam, S., & Crn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 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feifer, M., Goldsmith, H. H., Davidson, R. J., & Rickman, M.(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5), 1474-1485.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 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37-543.
- Rubin, K. H., & Asendorpf, J.(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K. H. Rubin & J.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 3-18).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Burgess, K. B., & Coplan, R. J.(2002).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Eds.). *Blackwell' s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pp.329-352). London: Blackwell.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 Rubin, K. H., Cheah, C. S., & Fox, N.(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97-115.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3), 467-483.
- Rubin, K. H., Hymel, S., Mills, R. L., & Rose-Krasnor, L.(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developmental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D. Cicchetti & S. Toth(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2, pp. 91-122).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pp. 255-284).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Stewart, S. L., & Coplan, R. J.(1995).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onceptu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157-196.
- Scarr, S.(1998). American child care today. *American Psychologist*, 53(2), 95-108.
- Schipper, J., Tavecchio, L. W.C., van IJzendoorn, M. H., & Linting, M.(2003). The relation of flexible child care to quality of center day care and children' s socio-emotional functioning: A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6(3), 300-325.
- Volling, B., & Feagans, L.(1995). Infant day care and children' s school competenc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2), 177-188.

접 수 일 : 2008년 1월 21일

1차 심사사작일 : 2008년 2월 12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2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3월 24일